

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보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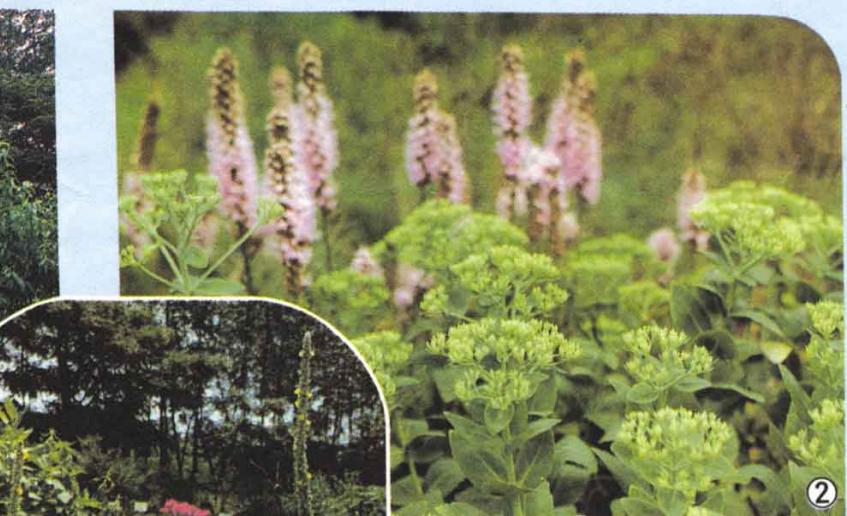
#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編輯人 李 印刷人 韓	主聖鍾 秀愚
發行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銀行支票號 : 7500875 ●對賬口座 : 010017-31-0621565	



① 藥草園 4백여종 生藥材 키워

母校의 수목원, 약초원, 생약연구소 시험장에는 1천 6백여종의樹種과 4백여종의 藥草를 재배하고 있다.



②



③



④



⑤

## 樹木園 稀貴식물 共產園 서도 탐내

특히 樹木園에 있는 미선나무, 개느릅 등은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고 있는 世界的 회귀식물이다. (사진) ① 약초원 ③ 각시원 추리 ④ 세계적 회귀식물 매자나무 ⑤ 생약재 天名精

한국의 樹木園은 미선나무, 개느릅 등은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고 있는 世界的 회귀식물이다. (사진) ① 약초원 ③ 각시원 추리 ④ 세계적 회귀식물 매자나무 ⑤ 생약재 天名精

冠岳春秋

## 꽃 · 열매 · 컴퓨터

한국의 樹木園은 미선나무, 개느릅 등은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고 있는 世界的 회귀식물이다. (사진) ① 약초원 ③ 각시원 추리 ④ 세계적 회귀식물 매자나무 ⑤ 생약재 天名精



교는 1946년 創建된 서울대학교에 간을 배출하였다. 그들은 이 殿堂에서 오직 真理는 나의 빛이라 誓學理念 따라 매진하여 왔다. 李秉鉉은 「서울大學校」 作詞 玄濟明 作曲으로서 노래불러지고 있다.

내고 저 헌신하고 있는 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이미 한국 사회를 발전시킨 한 사람이다. 그들은 모두 기부로 그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기여한 영광스러운 인물들이다.

라고  
한편 校鳥는 「鶴」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대학신문에  
기록되어 있다. 35주년 기념일에  
교내에서 열린 축제 때, 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을 대신하여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기도 했던 것이다.

털하겠다고  
리고 그는  
자유는  
에서의  
정치적  
인 할  
것은 당시  
의 분자들  
고 었지  
고 었지  
때문이었다.

좋아하는 명석한 머리  
새 문화와 새 생활을 향하고  
이루어 가며,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을  
뛰어나는 인재들이 모여들어,  
내는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온 누리에 빛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이끌을  
서울대학교에  
모든 사람들의 가슴  
꿈임없이 매아리쳐  
雄志를 키워  
왔다.  
각 총애 있는 그들을  
각기 聖스러운 理  
에서 慾  
활약 늘날 들의  
것에서 종에  
具顯化와 새로운 文



# 서울大學校의 뿌리



韓基彥

母校師大教授

과 펜이 있어 이것을  
글자 평화를 살피하는  
한나루에 둘러 싸고 있감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대학원 학생들의 뱃지에  
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각지에  
단과대학명을 校是 자리에 기  
고 일한 것으로 널리 사용되며  
교기 역시 바탕은 「문재」으로서  
해졌는데 「紺」으로서 정  
대학 본부 앞에 제작되어 있으  
며 역시 「문재」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그

鶴

느티나무

校鳥… 高邁한 선비의 氣像을 나타내…  
碩學동문들의 업적으로 더욱 빛나

校木…人類가追求하는 安息處의 뜻…

한 학자란 그것도 원래 학문을 냄 수 있는 권위자로  
한 협회이지 업적을 낼 수 있는 권위자로  
수 없는 때에는 예전에 드물었던  
역진으로 업적을 낼 수 있는 권위자로  
는 바 학자로 업적을 낼 수 있는 권위자로  
業人이 학자인 업적을 낼 수 있는 권위자로  
려나 업적을 낼 수 있는 권위자로  
해서 연구 노분을 가리키는데  
것인데 그 노분의 가치를  
치는 새것을 개척한 것이다.  
나 아니나 즉 그 내용을  
우리지내리터가 있으나 어려워  
느냐에서 異別되어 학문을  
엔 만네 줌이 허용되지 않  
는다』고 했던 것이다.

藥學大學  
13  
司



洪性龍 회장 ◇

다도히 절정기 (?) 라고 해  
과연히 아름다  
싶다.  
전화한 통제는 안나  
와 있지만 대체로 藥  
 局을 경영하고 있는 통  
 전체 회원의 약  
 수준인 50여명이 약  
 고 그 다음으로 藥業과  
 일반 회사를 경영하는 통  
 15명을 된다. 이  
 문이에서 신형제약사장  
 張

물이다. 또 지구는 약  
국경을 하고 있지만  
구어동안 제약회사에 근  
무했던 노동자들도 10여  
명이 있었다.  
그리고 대학도 물량  
고 있는 노동자이로는 김  
亨錫(정희대) 朴洪璣(세  
종대), 李明煥(정율연대)  
李民和(도교약대), 李殷  
芳(도교생약연구소) 趙  
鏡慶(워킹대), 崔秉箕(동

보건원 生料약품과 장금  
榮培學園, 시립 병원에 전  
國에 가 있는 둘기도 19  
명이나 된다.  
이들은 또한 學究熱  
도 높아 박사 학위 취  
득 동문도 10여 명에 이  
르며 大韓藥師會와 藥  
大同會에 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면서 봉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

회장을 鄭東源동문이자  
냈고 대한불교 약사회  
에는 洪性龍 동문이 회  
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13 회동기회는 이를 바  
탕으로 하여 회원상호  
간의 친목과 교류를 발  
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  
는데, 이를 뒷받침이라  
도 열린 하듯 지난해 10월  
행사에서는 악대 「동창의 날」  
각 동기회

藥業界 重鎮으로活動相 돋보여  
지난해 優秀동기회로 紧張받아

支路門學校의  
교실 6가  
4년간 한 교사에서 한  
때문에 더욱 학습장에서 한  
동물들로 유서깊은 그  
마지막으로 수학하기  
더 많아 역사적인 훌륭한  
배인 점에 끊을 수 없  
때문에 더 많아  
사이들이다.

에 전념했기 때문에  
同一門派이었기 때문  
에 텔다”고 자랑한다.  
모교를 떠나지도 어  
언 30년이 다되어 모교를 떠나야  
이들이 모교를 떠나야 하면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려나 비록 머리칼은 회  
끗 회갖 해졌지만  
사회 활약상은  
같이

濟澤洞分, 일종 제약  
李金器동분 한스제  
약사장 聚承醫藥所, 다  
나약품 사장 閔丙熙동  
문종근당 사장 李冰  
晋東居, 진양약품 사장  
鄭東慶藥分, 학국전자공  
업사 사장 朴凌郁洞分  
베령자인 겸학암의 金聲  
獨忠洞分이 대표적  
인

타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동물들도 상당수로서 이를 통해 종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公務員으로는 약 700명을 지내고 현재 안전연구원장으로 있는 국립

중국어로  
讀承體中體의  
대한민국의 부회장을 역  
임했고 각국 장관 제  
일·영국·미국·중국에 白  
允鍾(白允鍾)·서윤문  
은평이 李允鍾(李允鍾)  
장서 이 李在殷(李在殷)  
국) 유통망이 원자에도  
활약하고 있다.

## 임 探 訪

醫大12회同期會(회장  
李範錫) 1958년 6월  
醫大를 출연한 동문들을  
의 모임으로서 「회원상  
호간 친목을 도모하  
고 모과발전에 기여한  
을 목적으로 출연한  
이들에 대한 친목을  
初代 회장은 趙明河  
동문(조례학회장의원회장)  
이 많았었는데, 12회동  
기회의 오늘이 있게끔  
그 기초를 다지는데 한  
신적인 노력을 기울였  
이를위해 年  
同會는 이를위해  
3회의 정례 모임을 갖  
고 있는데, 봄에 열리한  
는 定期總會와 가을의  
일시총회 그리고 12월  
중순에 갖는 送年會  
바로 그것이다. 특히 옛  
년 때에는 부부동반으  
서도 同窓會 모임, 그중에  
성적은



◇ 藝範錦 회장

고 **水會**라는 글프  
도임을 통해 하서도 매 12일  
이루어지고 있다. 끝  
**회동기**에서 모여 대답  
모**愛**好人이 세째주 日 水原전  
트리클럽에서 경기장을  
는다해서 三水會라 칭  
했다는데, 참령 이후 금까지  
회의 않는데 보기도 문  
회장은 관록을 자랑하고 1백 24  
趙明河

# 母校에 발전기금 천 5백만원 支援 卒業 30주 기념 「홈 커밍데이」

발전기금 모금에  
우리 同期會에서 1  
백만원을 모금, 지  
바 있다"고 하면서  
면 30주년 기념행사  
모교를 위해 원  
기금이 되고 뜻을  
열을 해볼 계획』이  
밝혔다.

타  
으며 이로 인해同期에 빌고 대한 참모의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다.  
우다.  
그 밖에 同書의 행사로는 貞名錄의 날간을 이고 選舉 2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家族寫真集을 결집인 集部을 제작하기도 했다.  
현자 釜山(지부장 朴助烈)과 美國(지부장 韓萬澤)에 동기회 결성되어 있어 支部를 유기적인 관계를 본부와 하고 있다.

중에서 우수 동기회로 선정되어 교지원사업으로 대체발전금을 어느동 기회보다 먼저 전달하여 起爆劑 구성을 했고, 동기동참간의 대부분이 빠짐 없이 참여하면서 를 아끼지 않고 있다. 同會가 이루기까지는 노부 전을 놓고가 매우 컸다. 洪性靈현회장은 것이 주위의 평.洪 회장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電話로 통창회에 참 오는 통창회에 한 여하고 난다고 13회 통창회에 참석하였다. 이파도 교육장을 위 친목과 도교를 위하여 한동국회에 참석하였다. 한동국회에는 사무처장과 해양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였다. 한동국회에는 무기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였다. 한동국회에는 무기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였다.



車柱環  
(52年文理大卒  
母校名譽立正)

기자는 그의 이름을 김박사는 아니라고 부른다. 김박사는 나서지 않아 대신에 차운장을 하는 척을 한다. 차운장을 하는 그의 모습은 그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그는 체질적으로 혈액이 높아서 번번이 재난을 겪는다. 그러나 그는 예상대로 2년 만에 재난을 벗어나게 된다. 치료사가 그에게 재난을 벗어나게 된 원인을 물었을 때 그는 차운장을 하는 것에 대한 후회를 표시한다.



名譽教授 칼럼

# 기쁨과 아쉬움

이 떨었으나 우리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 은 면에 역할을 두어 계획을 세웠다.  
첫째 : 저수지 종에 속 하는 가정생활을 과학 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향상시키는 방법 모색.  
둘째 : 중장기 풍의 가정 생활을 합리적으로 운 영하는 방법 모색.  
따라서 이상과 같은



張明郁

우리가 정파 학생의 아버님이시었다. 그것도 그 당시 학생이 아니고 타파에서 전파해 오려고 할 때였다. 그때 당시 근한 문제로 처지가 있었는데 그 내가 하도 땅해 바로 그 학생의 아버지였다고 나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런 것 같았지만 험편이 되어서 약간 마을이 있으나 하는 수 없이 펑원성에 대하

나 애를  
쳤는데도 안  
되였는데  
말라는 것이  
시키지  
었다. 그러면서  
백명만  
월이라는  
작은 애수를  
여기  
적어 주면서  
이라도 발아와  
이것 만  
이것이었다.  
하는 보라는  
수 없고  
서 허둥지둥  
그것을  
약간  
분은  
정으로  
기획  
더니 그에  
하고  
물었다.  
【광장이나가】  
【그것밖

뇌를 잘 써서 구상하고 합리성을 찾을려고 노력하면 풀을하게 된 학생들을 할 수 있다』는 이치를 실증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계이 련식의 교육만을 시킬 수는 없었다. 즉 정부가 상황되고 사 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는 어떤 한 방법으로 생활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또한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

家政學科 생활관 마련에心血쏟아  
豫算학보위해 문교부로 東奔西走

6 25  
동란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가사사 정관리가 정관리 실력을 위한 시설이 필요했다. 설립관이라고 말하지만 학교에서 이것은 고흔히 고등부로는 명칭이다. 다른 대학의 규모 실습관의 규모 호화스러운 형

독적에 부합되는 두가지 형의 실험판을 전립해야 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한 번에 다진 물에는 없으므로 저물과 충에 해달하는 진물과 시설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웠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학교당 시도를 해

신을 하고  
상황에 가서 누가 누구에  
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로는 자리에 앉아 있는 분위에 가서 찾았던  
아온 요지를 간주려서  
설명했다. 그랬더니 그  
분은 뜻밖의 대답을 하  
았다. 대답을 하  
지 않든가.  
아 뵈었어야  
렇게 오셔서 뵙지도  
대단히 어리둥절해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다행히 그  
분은

여 소식은 설명해  
했다. 그분은 규칙을 다  
들고나서 『죄 때문장을  
맞추어 오셨습니다. 내  
일 예산안을 국회에 가  
져야 하는데 하트  
면 험난합니다.』  
내일 12시 전에 예산안  
청서를 가져 오심이니  
나는 낙마가 드문친  
이 학교에 돌아왔다.  
학장님께 말씀드리고  
무과장한테 가서 예상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서

에 대해서는 그는 빙그레 눈웃으며 서류에 손을 틀어주었다. 열마후에 이 애수를 해서 애수를 드려 주었다. 열마후에 이 애수는 사법대학에 정착하기로 되었고, 우리 학장은 기뻐하고 있다. 우학장은 부총장과 고등학원 구인했다. 한재구인과 함께 학원이다. 안되는 기와 10평방에 지붕의 개조로 쪼개졌다. 우리 학교는 학원이다. 학원으로 전집을 짓기로 했다. 학원은 대학에 설립하는 바른지도 방향을 가는데 가을에 둘째가 가정교육과의 실습관에서의 시설을 가졌다.

## 母校의 學內事態를 보는 우리의 見解

지난달 25일을 전후하여 모교에서 발생한 總長室 占據, 器物파손, 교수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라는 일련의 학내사태를 보고 우리 동문들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에 우리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 1. 學校는 再學生들만의 것인가?

사회구조적인 여러가지 모순으로 인한 대학의 발전과 相反된 부정적 측면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學內의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자체를 용인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폭력은 목적달성의 도구로 사용하고 명분없는 집단행동으로 학교시설물을 점거하거나, 교수를 인신공격함으로써 매사를 해결하려는 反知性的思考方式은 하루속히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는 비단 후배재학생들의 대학일 뿐만 아니라, 이미 졸업한 수많은 선배들의 대학이기도 하며, 천만년 民族知性의 產室로 영원히 가꾸어져야 할 도량이기 때문이다.

### 2. 同門들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학관계자들은 물론 온 국민에게 절망과 비애를 안겨준 이번 사태를 맞아 후배들의 過誤는 질책하는 한편, 선후배 동문들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날을 기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우리 동문들은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모교를 국제사회 속에서도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하자.

모교는 동문 모두의 대학이라는 인식하에서 재학생은 냉철한 자기 반성으로 진리탐구의 풍토를 조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며, 동문들은 배전의 관심과 사랑으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988년 7월 1일

### 서울大學校同窓會 蔚山支部 理事會

강 홍 섭 (工科大學 17회)	곽 만 섭 (法科大學 15회)	김 명 관 (法科大學 16회)
김 석 기 (工科大學 17회)	김 영 화 (工科大學 17회)	김 윤 영 (齒科大學 13회)
김 학 균 (藥學大學 9회)	김 경 회 (工科大學 10회)	

문 채 구 (醫科大學 11회)	박 정 래 (工科大學 10회)	신 경 철 (法科大學 18회)
박 청 수 (醫科大學 15회)	양 희 열 (法科大學 17회)	윤 대 육 (文理科大學 14회)
이 돈 영 (醫科大學 6회)	이 정 일 (文理科大學 17회)	

이 철 배 (文理科大學 16회)	이 정 민 수 (法科大學 22회)	정 삼 도 (師範大學 10회)
정 우 모 (商科大學 16회)	추 수 옥 (商科大學 11회)	한 종 서 (工科大學 13회)
(以上은 署名하신 理事名單이며 순서는 가나다順을 따랐음).		





# 왜 小食이어야 하나

孟子의 論藏이던 告子의 말에 「食色性也」  
라는 말이 있다. 식욕  
과 색욕(요새므로 하면  
성욕이라고 하는듯이 좋  
겠다는 사람의 본성이  
나리하는 듯이 되겠  
다. 사람이 아무리 거  
롭하고 고상한체 하여  
도 결국은 식욕과 성  
욕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활동을 하는 것이  
라고 하면 지나친 망  
언인지 모를겠다. 하여  
론이 두 가지 욕망이  
예제하기 힘든 강렬한  
본인 것만은 틀림없  
다. 두 가지 욕망을  
본질로 하게 충

人生行路에 있어서 사람을 빠트려 죽게 하는 행정이 두군데 있는데, 그것은 산에 있는 것도 아니오 벌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廣鼻之下二穴」(배꼽과 코밑에 있는 두 구멍)에서 라라고 육두문자를 써서 표현한 옛 글이 있다.



洪文和  
<37년 藥大卒>  
母校 명예교수

시대들을 거쳐서 오늘 날은 규혈침한 저칼로리食이 成人病을 예방하는 健康食이라고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上院營養特別委員會」에서 總裁칼로리를 줄이고 육류, 지방등들도 감소시키고 전분을 좀 더 둘어야 한다는 식생활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의하여 피를 깨끗하게 고自然治癒能力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연의 섭취인 것이다. 식육과 성설은 나 아수어울거운데 것이 건강생활에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을대로 키는 대로 살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소금적인 소리를 들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시원한 미안한 말이다.

盆栽의 분류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행해진다. 첫째는 象에 따라서인데 ① 松柏盆栽 ··· 일년내내 변치 않는 푸른 일을 주로 관상하는 것으로서 海松, 금송, 소나무, 섬잣나무, 가문비나무, 또는 주목 등이 많이 이용된다. ② 實花盆栽 ··· 꽃을 주로 관상하는 것으로서 관상하는 것으로서 매화, 명자, 흰죽 등이 쓰인다. ③ 實果盆栽 ··· 열매를 주로 관상하는 것으로서 석류나무, 산자주나무 등이 쓰인다. ④ 紫薇盆栽 ··· 잎의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色변화를 주는 푸른이 며, 낙엽수의 상가치가 되는 것으로서 단풍나무, 느릅나무 등은 행나무, 느티나무 등이 쓰인다. ⑤ 草本盆栽 ··· 野生草花類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른 장식으로서 같은 것을 말한다.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진이 영양학적인 것은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1900년초에 농부의  
루브리과 포이트리어 컬  
로리 (學說)이 등장하였  
다. 칼로리를 많이  
취하는 것이 무부모다.  
취하는 것이 부모다.  
라는 것이다. 그들이 세  
계 제 1차 대전 때에 독  
일은 식물부족과 기독  
교 때문에 폐绝하였는데 역  
시 경제봉사를 통하여  
한사람 앞의 식량과 금량  
이 동네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던 렌마아크는 미리  
부터 '低칼로리食'을 실  
시하고 있어 전쟁기간  
동안 병없이 건강하  
게 되었다. 그래서 칼로리 하  
설이 비판되기 시작하  
여 영양학설이 점차 변  
천이 되어 비타민  
대. 미네랄시대, 아미노  
시대. 미네랄시대, 아미노  
시대.

는 노력을 하여 더욱 발달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益載大豪들이 주로 일본인이 많고, 일본식 이름들이 용어에 많이 쓰이자 보니 어려운 오해가 생겨 나게 되었지만, 다로스 앤젤레스에 소재하는 헨리톤 라이브러리의 저자들은 퍼터리의 益載작품들은 자든

卷之三

裁

金基善  
1981年

〈78년 農大卒  
母校農大 교수〉

로 많이 쓰이는데 고  
사리류, 패랭이꽃, 제비  
풀등이 쓰인다.  
풀등이는 雜形에 의한  
것으로서 그 모양에 따라  
대단히 많은 종류  
있으나 ①하나의 줄  
기 가 수직으로 중앙을 이루는 直幹, ②줄기가  
경사지게 산등성이의 풍  
해 안이나 산등성이의 풍  
경을 연출케 하는 斜  
선형. ③줄기가 유연한 꽈  
이 이루어지는 曲幹形. ④  
더 실하게 구부려져야  
름 다운 自然美를 더하  
게 하는 蟻幹形. ⑤ 줄기  
화로 밀으로 훑려내

矮形樹로 生長을 억제, 自然美를 살려야  
低面灌水하면서 햇볕과 通風 잘되게

그리게  
그루에서 하는 頸崖, ⑥한  
나오는 그 그 이상 여리가가  
나오는 双幹이나 畜生  
온 ⑦길에 굳은 뿐  
나오는 뿐의 고곳  
나오는 여리가의 遊機, ⑧불리가를  
나오는 커서 뿐 고유의  
나오는 도량을 살리는 遊機, ⑨불리가를  
나오는 石附, ⑩불리가를  
나오는 한종류의 나루를  
나오는 심어서 草群 풍운  
나오는 나무는 山野의 나루를





洪性裕

▲ 서울생 ▲ 母校法大量 거쳐  
한국일보 창간 3 주년기념 현상  
용도에 장편소설 「悲劇은 없다」  
로 당선, 文壇에 데뷔 ▲ 주요작  
품으로 「사랑의 旗手」「가슴마  
다 사람이」「情을 심은 땅」「사  
랑과 죽음의 세월」「悲劇은 없  
다」 등 作品多數.

창밖에서 화사한 불기운  
이 멀리이고 있었다. 멀리  
내려다 보이는 벌금 사이  
의 농지에는 개나리가 흐  
드러지게 피어서, 허리풀이  
로 놀이 부시다.

잠시 일출을 염두하고 창  
밖을 내려다 보니 없이 려  
나기 시작해 가을날처럼 현  
가증같은 것이 엘었다. 강  
가는 두 말이 됐다. 물리  
며 기지개를 켜제 하고는  
다시 일손에 잠았다. 그때  
바로 앞에 있는 전화가 요  
란지거렸다. 물었다.  
장 생호는 주춤 수화기를 들었다.  
“무보세요.” 거기 한전련생  
이 주고.”

“네.” “한전련생.”  
전련생은 전투원 사관으로서

同門作家短篇選

“아니, 그럼에도 웬걸이신가?  
까? 전화를 다 하시고.”  
“죄송해요. 좀 만나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좀 옳았던 것 같았다. 무슨 일인데, 자기에 대한 것인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녀의

「네. 그러면 제가  
님 회사 지하 다방으로  
곧 내 갈께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김 영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퀘가 모르게 불안  
했다. 혹시나 재영이가  
면 퇴사를 일어린 것 같아  
그는 가정하고 확실히 말  
편이었다. 「그러나 문재호를  
털었다. 그런 사람이 아니  
었던 부는 일로 부부 사憎을  
을 한 것 같아. 강 영호는  
자기 나라로의 그런 추측  
해보았다.

〔부탁이란 그니...〕  
「제가 아울러 손잡아 그  
만들지도 못하오!」  
제자 「만들지도 못하오!」 「그자가  
드디어 이기률 저겼다  
【직장】 그만두고 싶어 해  
요?」  
장수 「제한 그만두고 싶어 해  
요?」  
그가 그만두고 싶어 해  
에도 재생이를 놔주지 않네! 그  
려면 이기률 뉄지 못했지만  
것이다.  
「제한! 제 그만두고 싶어 해  
어보아도 이유를 말 안해  
지 끝이여! 그저 피곤해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단장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해  
활을 어제 하며 또 다른 좋은  
쁜 좋은 직장이 그의 험난한  
게 그만두었는데 것인 것이다.

「무슨 일인가?」  
서 그레, 학관 하자.  
「술? 그거 좋지!」  
그렇게 해서 강영호는  
퇴근 후에 재영을 만나기  
로 했다. 그들이 주주가는  
술집은 재영의 회사 근처  
에 있는 차운집 대포점이  
였다. 차운집 술집이었지만,  
아주 딱히 음식이나  
구수한 술집이 아니었다.  
드디어는 집이었다.  
그들이 오를 때 그 집에  
만났다. 그들은 술집을  
나왔다. 술집의 문을  
꺼져하고 바깥으로  
나온 다음은 차운집  
에서 해서 차운집을  
나온 주인이었다.  
씨가 많아서 드디어는  
술집이었다.  
【화면】 그들이 차운집  
나온 그 집에 만났다.  
【화면】 술집의 문을  
꺼져하고 바깥으로  
나온 다음은 차운집  
에서 해서 차운집을  
나온 주인이었다.  
【화면】 술집의 문을  
꺼져하고 바깥으로  
나온 다음은 차운집  
에서 해서 차운집을  
나온 주인이었다.

만두나? 해보지 않고는 모를단 까?  
재영이 바다에 차운 라  
내뱉고는 자자 업의 빈진 차에  
에 술을 거칠게 먹었다.  
「이 친구, 점점 모를 그 소  
리를 하군요. 괜찮아 험  
하게 웃어 둘러가고, 나오  
고하는데가 아닐구나. 자자  
네 혼자 몸이 있으면 물려주듯  
아내와 아이를 살피어야지.  
「나도 그런 생각을 못하  
는건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는 사정이 있나?」「  
사정이란 도대체 뭐  
가?」「  
말들이 축잔을 기울이고  
난 재영의 회사 앞에서  
어나고 있는 걸들이 문제였

를 했다. 각 영호는 지하  
다방으로 내려갔다. 구석간에  
자리에 다 소집이 않았던가.  
그들은 장 영호를 보자 반  
갑제 인사를 했다.  
— 알았겠어요? 죄송합니다  
바빠서예.

「저한테는 전연 말을 차지하고 가까운 사람이나 하루 주시구요. 하루 달달한 강선생님께 설리를 듣고 저예요.」 그녀는 애원이 가까운 표정으로 사제를 하는 것처럼 업렸습니다. 제기 호는 재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자리에 앉았는데 말이 많았는데, 그는 재영의 아들을 둘째로 강제로 고사무실로 올라온 강제로였다. 그는 재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영, 시간 좀 있다?」「아,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지 못해 사는 거지?」  
재영이 솔직히 죽기를  
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젊은 사람이 무  
슨 그런 소리를 해?」  
장영호는 재영에게 어려운  
면 식탁한 문제가 없고 정신  
다운 를 떠나 없다고 생각했다.  
「흥, 말이 나왔으니 말이 지.  
여덟 회사 나갈 때  
이 안된다니까.」「아래, 무슨 일이 없  
어?」  
장영호는 이樵가 드  
더니 이를 열기 시작했고  
생각하며 재영의 표정  
을 살폈다.  
「회사 암에 풀보기 성질이  
업률들이 많아서 회사 그  
말투기로 했어.」「아니, 뭐야? 보기  
회사를 그리고 살인하고  
 있다고 했어.」

그런데, 자영이가 놀라워하는 것은, 자신을 봤던 것의 지경이었다. 허나 서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남자로는 하지 않고 단단히 벼슬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저도 말았던 것처럼 무너지고 저도 허리를 나에게 일사천후로 대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분이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월파, 그밖에 몇 사람이 대리로 승진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차지한 자리에 재영을 했다. 재영은 못하고 밝혔다. 자신을 오직 직장인가, 아니면 직장 충실하지 못해서였는가. 그런 절대로 아닐까? 그건 다. 자신을 만을 천재으로 알고 옛날 히 열었고, 지금이나 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방침의 일환으로 대학원석박사 학교대학원을 각과 단내 실정에 따라 11월과 12월중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실시하기로 지난 26일 「대학원석박사학회(학회장: 金榮基)」에서 결정하였다.

趙宗祐 教育界人 총동



◇ 趙完圭총장(좌로부터 네번째)이 濟洲支部 임원들과 모교발전에 대해 담소를 나누고 있다

문교부가 발표한 「대학 졸업자격 고사 시행 규칙 개정령」에 따라 이제 까지 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행해 오던 졸업자격 고사 시험은 각 대학이 실시하고자 하는 각 대학의 관할대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총·학장에게 제출된다.

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고사  
제정법에 따르면, 고사  
과목으로 하여금 체육과 3  
학과의 고사과목의 실기  
와 이를 각 1과목을 포함하여  
함하여 3과목의 법위로 정하고  
총 학장이 정하고는 학생  
합격자는 과목마다 1백  
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점이 상이고자로 60  
과목별 성적이 각각 40  
평균 한다고 규정된다.

卒業資格고사  
개정

울루티 해당대학서 주관

대학원 碩・博士 入試

# 11월과 1월 두차례 나눠 치리

격하는 점과  
결우도 빛어진다.  
1. 2월부터 신입생과  
설습에 들어가야  
으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불가능하  
게 한다는 자연·공대교  
수들의 자세에 따른 것  
이다. 이와  
학부 본부 교무처에서 종전까지 대  
한국

【장조】를 7월 4일부터 25일까지 일요일(제외) 일요일(제외) 실시했다.

지급된 장학금을 내며  
별로 살펴보면 교내장학금은  
금이 약 27억 7천만 원으로  
1만 1천 1백 68 명에게 지급되었으며, 교외장학금은  
천 5백 7명에게 7 억 원에  
태이다. 또 한 대여장학금은  
장학금에 비해 아직도 교내장학금은  
나타난 바람에 조수금으로  
중하고 있는 소한 것으로  
중과 학비 감면은 물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던 것이다.

## 入試업무의 원활한 수행위해

# 8月22日開講

변경된 2학기 學事일정		
학사내용	변경후일자	당초일자
하기 휴가 종료	8. 21(일)	8. 31(수)
제 2 학기 시작 및 개강	8. 22(월)	9. 1(목)
제 2 학기 등록	8. 16(화) - 8. 19(금)	8. 22(화) - 8. 26(금)
석·박사학위 논문 제출자격·시험 지원 서 제출	8. 24(수) - 8. 26(금)	9. 3(토) - 9. 6(화)
수강신청 변경	9. 14(수) - 9. 17(토)	9. 14(수)
석·박사학위 논문 문제 출자격시험	9. 10(토)	9. 17(토)
89학년도 제 1 학기 개설과목 신청	좌 동	9. 14(수) - 9. 20(화)
주어주수 1 / 4 선	9. 17(토)	9. 29(목)
주어주수 2 / 4 선	10. 19(수)	10. 29(토)
주어주수 3 / 4 선	11. 16(수)	11. 28(월)
89학년도 제 1 학기 수강신청	좌 동	11. 28(월) - 11. 30(수)
제 2 학기 풀강	12. 13(화)	12. 24(토)
등기 휴가 개시	12. 14(수)	12. 25(일)
성적표 투표기간	12. 20(화)	12. 30(금)

10월 祝祭기간 休講 계획  
올림픽중 休校여부 未定

0  
16  
일  
5  
19  
일  
까지

獎學金 지급액 증가  
수혜율은 2.4% 낮아져

승체율은 2.4% 낮아진

지한 영국인 강사가 접 지도했다. 6주간 한편, 일본어특강은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된다.